

###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열화상 카메라 운영

“코로나 확산 예방· 장애인 복지 증진 위해 노력”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에서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으며,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모두 잠정적 운영 중단해야 하는 심각한 사태에 이르렀다.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광주를 대표하는 장애인복지관으로써

바이러스의 확산과 복지관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분들 위해 복지관은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열화상 카메라를 지원받았으며 앞으로의 상황변화에 따른 다양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 김미란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단체생활을 해야 하는 복지관 특성상 감염 차단에 유의를 해야 한다”며 “코로나 확진자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코로나 확산 예방 및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더 노



력하겠다.”며 지원에 대한 감사인사를 남겼다. 강아라 기자



KT가 기업 캠페인 ‘마음을 담다’를 통해 인공 지능(AI)로 선천성 청각 장애인의 목소리를 복원했다. 주인공 김소희씨.

### KT, 따뜻한 AI 기술로 선천성 청각 장애인의 목소리 되찾다

“제 이름은 김소희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에게 내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해요.” KT가 기업 캠페인 ‘마음을 담다’를 통해 인공지능(AI)로 선천성 청각 장애인의 목소리를 복원했다. 1일 KT는 새로운 기업 캠페인 ‘마음을 담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사람을 위한 따뜻한 기술을 기반으로 개개인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구현모 신인 KT 대표이사와 KT의 의지와 진정성을 담았다. 이번 캠페인의 첫 번째 주인공은 ‘선천성 청각 장애인’ 김소희씨(48·여)다. 김씨는 태어날 때부터 청력을 잃어, 본인의 목소리를 들어보지도, 다른 사람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지도 못했다. KT가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는 그녀의 가장 큰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나섰다. 먼저 김소희 씨의 목소리를 복원하기 위해 먼저 가족들의 목소리를 녹음했다. 이어 동년배 사람들의 목소리를 분석하고 그녀의 구강구조를 파악해 목소리를 추론해 나가는 ‘기가지니 AI 음성합성 기술’을 통해 목소리가 완성됐다. “딸의 목소리를 한 번만 들어보면 일평생 소원이 없겠다”는 김씨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목소리를 주고 싶은 것이 어릴적부터 소원이었다”는 김씨의 언니 김미경씨 등, 김씨의 가족들은 난생 처음 듣는 김씨의 목소리에 눈물을 터뜨렸다. KT는 이번 ‘제 이름은 김소희입니다’ 편을 시작으로,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을 담은 ‘제 이름은 000입니다’ 시리즈 형태로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 광주시, 농아인 삶의 질 향상 위해 ‘수화통역서비스 실시’

주말·휴일·야간 긴급서비스

광주시는 4월1일부터 5개구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농아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광주형 수화통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엔 실시되는 수화통역서비스

는 지역사회 수화통역 욕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개구 장애인복지관에 수화통역사가 직접 배치돼 현장 맞춤형 통역서비스가 되도록 지원한다. 당직 수화통역순번제를 실시해 주말·공휴일·야간 긴급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시는 시립장애인복지관에 수어지원팀을 신설해 청각·언어 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복지관은 수어(한국수화언어) 홍보, 통역서비스가 포함된 평생교육프로그램, 농아인을 위한 유튜브 수어방송, 수화통역관련 어플개발, 복지

욕구 조사 등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기존의 수어통역서비스는 지역 장애인복지관에 배치된 수화통역사를 통해 5개구 복지관별 현장에서 제공되며, 수화통역 및 청각장애인 복지서비스 문의는 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관 양동분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최영범 기자

### 장애단체 “코로나19 의심에 병원 가도 수어통역 못받아”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병원과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이 많아진 가운데 이들 의료시설에 귀가 들리지 않는 농인들이 위한 수어통역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 허물기)은 1일 오후 1시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에도 병원을 찾는 농인들은 수어통역을 받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벽 허물기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대상으로 차별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

에 제출했다. 진정서에서 장애벽 허물기는 △단계적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영상통화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만들 것 △수어통역사가 통역에 개입할 경우 안정보장 기준을 만들 것 △중장기적으로 재난에 대비한 전문 수어통역사 양성 등 계획을 세울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진정인으로 나선 장애인 활동가 A씨는 5세와 3세 두 아들이 감기 증세를 보여 병원에 갔지만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답답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A씨는 “1339로 전화를 하려 했지만 영상통화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 포기했다”라며 “(방문한 병원의) 의사가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대화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부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